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121-136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121

KJHD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Effects of Adolescents' Trait Anger and Anger Rumin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adness Rumination

1차원고접수: 2026.04.09. 수정원고접수: 2026.08.25. 최종게재결정: 2026.09.19.

유예지[1] · 한세영[2]
[1]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2]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You, Yeji[1]
Han, Sae-Young[1]
[1]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와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국내 만 14 ~ 15세의 남녀 중학생 총 38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PROCESS macro 4.2의 Model 4와 Model 15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특성 분노는 분노반추를 매개로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특성 분노가 높을수록 분노반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노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때 슬픔반추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슬픔반추가 분노반추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으며, 분노 중심 접근을 넘어 슬픔반추라는 인지적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특성 분노, 관계적 공격성, 분노반추, 슬픔반추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adness rumination 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trait anger on relational aggression. A total of 383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4 to 15 years old living with their parents in South Korea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SPSS 29.0 and PROCESS macro 4.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adolescents' trait anger indirectly influenced relational aggression through anger rumination. Furthermor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adness rumination was significant in the process of adolescents' trait anger influencing relational aggression through anger rumina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trait anger, the higher the level of anger rumination, which in turn increases relational aggression. At this point, the higher the level of sadness rumination, the smaller the mediating effect size of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Therefore, adolescents' sadness rumination may play a role in allev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rumina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study also lays the foundation for a more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by including sadness rumination beyond an anger-centered approach.

Keywords *trait anger, relational aggression, anger rumination, sadness rumination*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5)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한세영(Han, Sae-Young)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evenhow@ehw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 인지, 정서 및 사회적 성장과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는 시기로서(이하연, 박주희, 2014), 특히 또래의 영향이 커지며 사회적 관계가 확대된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거부되면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어려움을 겪으며(김춘희, 2002), 공격성 등의 반사회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Leary, Twenge, & Quinlivan, 2006).

이 중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을 가하는 목적으로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으로서(Crick & Grotpeter, 1995), 사회인지 능력 및 언어능력이 발달된 청소년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서미정, 2012).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학교나 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려우며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안현진, 금명자, 2018),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적 공격성도 최근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신민진, 하은혜, 2020; 전아영, 김은하, 2020).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경쟁적 태도와 반사회적 행동으로 갈등을 유발하여 또래로부터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박수진, 박창열, 이동훈, 2020). 관계적 공격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또한 또래 거부, 내현화 문제 및 심리적 괴로움을 경험하며, 그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Owens, Slee, & Shute, 2000; Preddy & Fite, 2012). 따라서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하연, 박주희, 2014).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의 원동력 또는 동기로서 개인과 사회 전체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Averill, 1983). 특성 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개인의 특질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분노 경향성으로서(조명현, 2021; Deffenbacher et al., 1996), 특히 청소년기의 반복적이고 격렬한 분노 경험은 고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Quinn, Rollock, & Vrana, 2014). 특성 분노가 높은 청소년은 흡연 및 성적 저하와 같은 부적응 결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교사와 또래는 특성 분노가 높은 청소년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Quinn et al., 2014).

좌절-공격성 모델에 따르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좌절에 의해 유발되고, 부정적 정서의 정도에 따라 적대적인 반응으로서 공격성이 나타난다(Berkowitz, 1978; Berkowitz, 1989). 따라서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은 개인은 도발에 직면했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Bondü & Richter, 2016), 특히 자아중심성이 높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관계적 공격성을 보인다(한영경, 김은정, 2011).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이서란, 2014; 황수정, 2015; Gresham, Melvin, & Gullone, 2016).

반추는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변인으로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한 가지로 분류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특히 청소년이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대부분 인지적 재평가 과정을 거쳐 수동적 공격 방법을 택한다는 사실(이규미, 1998)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분노반추라는 특정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춘 반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노반추는 분노 정서와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을 의도치 않게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인지과정으로 정의된다(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이때 분노반추는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 성찰의 효과를 일부 가지기도 하지만, 성찰이 아닌 그 사건에 계속 머물게 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이은화, 2010). 특히 청소년의 분노반추는 적응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분노를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킨다(김은희, 2020). 따라서 청소년은 분노반추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지속하고 심리적

고립, 불안, 우울 같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성 또한 높아진다(Harmon, Stephens, Repper, Driscoll, & Kistner, 2019). 즉, 분노반추는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노를 경험하면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이 부당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분노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며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민희진, 박경, 2015). 따라서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는 분노반추를 인지의 과정으로서 특성 분노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특성 분노가 있는 개인에게 분노반추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홍준혁, 2023; Besharat, Nia, & Farahani, 2013; Takebe, Takahashi, & Sato, 2015). 더불어서 분노반추는 공격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촉발요인으로서(배라영, 최지영, 2018),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아영, 김은하, 2020; Peled & Moretti, 2007) 뿐만 아니라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주영, 명소연, 이동훈, 2022)를 통해 폭넓은 연령대에서 분노반추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함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더욱 드물다.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반응적 공격성(Quan et al., 2022) 및 공격성(Wang et al., 2018)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유사한 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종단연구에서도 6개월 간격으로 특성 분노가 이후의 분노반추를, 분노반추가 다시 이후의 사회적 공격성을 예측함을 살펴볼 수 있다(Li & Xia, 2020).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다른 형태의 공격성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한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모델을 통해 특성 분노,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IP)(Crick & Dodge, 1994)은 6단계에 따라 개인이 사회적 단서를 왜곡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발생한다고 보며, 최근에는 높은 정서성을 가지거나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가진 개인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인다고 설명한다(Lemerise & Arsenio, 2000).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단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분노반추는 이후 반응 결정 및 실행 단계에서 정서적 자극을 증폭시키므로 공격 행동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계한비, 김정민, 2025). 다음으로 일반 공격성 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 GAM)(Anderson & Bushman, 2002)은 정서, 인지 및 생리적 각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개인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따라서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내적 상태와 행동이 함께 증가하며(Kersten & Greitemeyer, 2024), 이를 통해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특성 분노는 인지 요인인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침을 추측할 수 있다. SIP는 분노반추의 인지적 증폭 과정을, GAM은 분노반추가 행동화될 수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는 관계를 두 이론이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처럼 관계적 공격성, 특성 분노 및 분노반추의 관계는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관계적 공격성의 보호요인은 대체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으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지각하거나, 실제보다 자신의 현실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특성으로서(박성민, 임정하, 2021) 낙관적인 재해석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 중심 변인들이 관계적 공격성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서 및 인지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분노 외의 슬픔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추인 슬픔반추에 주목하고자 한다.

슬픔반추는 슬픔에 집중하고, 슬픈 정서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반복적인 사고로 정의된다(Conway, Csank, Holm, & Blake, 2000). 슬픔반추는 우울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Peled & Moretti, 2010). 그러나 슬픔반추 척도는 슬픔이라는 정서 자체에 대한 반복적 사고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우울의 증상과 관련 있는 우울반추 척도와 구별되는 것으로 논

의된다(Kelley, Walgren, & DeShong, 2021). 슬픔반추는 행동 지향적 사고가 아닌 수동적 사고를 유발하며, 자아에 대한 부정적 초점을 포함한다(Peled & Moretti, 2010). 따라서 슬픔반추는 내적인 슬픔에 집중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와 에너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Fahlgren, Puhalla, Sorgi, & McCloskey, 2019). 이는 슬픔반추가 분노반추로 인해 활성화된 공격 동기를 내면적 정서 처리로 전환시키는 인지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슬픔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다. 공격성 전반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슬픔반추와 공격성의 방향은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Fahlgren et al., 2019; Li, Zhao, Dai, & Zhang, 2021; Peled & Moretti, 2010).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슬픔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의 방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또래 피해를 경험한 개인을 성인기까지 추적한 종단연구에서, 분노반추는 성인기의 공격성을 예측하였지만, 슬픔반추는 성인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Malamut & Salmivalli, 2023). 구체적으로 분노반추가 높고 슬픔반추가 낮은 아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슬픔반추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Harmon et al., 2019). 이와 반대로 국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함께 또래 피해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며, 관계적 공격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21).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슬픔반추의 조절효과가 관계적 공격성 발생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슬픔반추가 어떤 조건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슬픔반추가 특성 분노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완화하는지 혹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완화하는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청소년의 특성 분노와 분노반추의 경로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슬픔반추의 정서적 몰입은 분노반추와의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진다. 분노반추는 공격성으로 발산되기 쉽지만, 슬픔반추는 폭발적인 행동보다는 위축 및 억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을 점차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슬픔반추는 그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탐색하고, 분노반추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 참조)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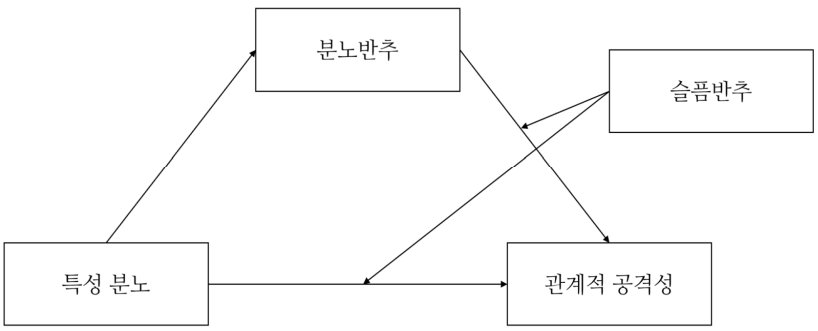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반추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슬픔반추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국내의 만 14 ~ 15세의 청소년 38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남학생은 164명(42.8%), 여학생은 219명(57.2%)이었으며, 만 14세는 60명(15.7%), 만 15세는 323명(84.3%)이었다. 학년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은 63명(16.4%), 중학교 3학년은 320명(83.6%)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46 ~ 50세(부: 41.8%, 모: 37.8%)가 가장 많았으며, 이후 아버지는 51 ~ 55세(26.4%), 41 ~ 45세(19.2%) 순으로, 어머니는 41 ~ 45세(32.4%), 51 ~ 55세(15.4%) 순으로 이어졌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61.9%, 모: 64.2%)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19.1%), 대학원 이상(11.2%) 순으로, 어머니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19.3%),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한영경과 김은정(20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인 외현적 공격성(20문항)과 관계적 공격성(20문항) 중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도 내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게 보고될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2) 특성 분노

특성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과 Solomon (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와 Spielberger(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인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중에서 특성 분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불같은 성격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상당히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게 보고될수록 특성 분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성 분노의 Cronbach's α는 .85이었다.

3) 분노반추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하고 정은의와 송현주(2010)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 K-A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분노후사고(7문항), 원인이해(3문항), 보복사고(4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분노후사고의 경우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등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인이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다.' 등이 있으며, 보복사고는 '싸움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상상을 한참 동안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인이해의 경우, 분노후사고 및 보복사고와 다르게 분노통제와 정적 상관을 가지지만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도 정적 상관을 가지며 혼합된 결과를 보인다(정은의, 송현주,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하여, 분노반추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상당히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게 보고될수록 분노반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노반추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슬픔반추

슬픔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onway 등(2000)의 슬픔에 대한 반추 척도(Rumination on Sadness Scale; RSS), Sukhodolsky 등(2001)의 분노반추 척도(Anger Rumination Scale; ARS)와 Caprara(1986)의 소실-반추 척도(Dissipation-Rumination Scale)를 수정보완한 Peled와 Moretti(2007)의 슬픔반추와 분노반추 척도(Sadness and Anger Rumination Inventory; SARI)를 직접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번안을 위해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생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1인이 번역 후,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는 아동학 대학원생 1명에 의해 역번역을 하였다. 번역과 역번역본을 비교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에 아동학 전공 교수 1인 및 아동학 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아 완성하였다.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인 분노반추와 슬픔반추 중에서 슬픔반추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과거에 나를 슬프게 했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슬프다.'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거의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게 보고될수록 슬픔반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슬픔반추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ewha-202503-0029-02)을 받은 후에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리서치 업체의 패널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국내의 만 14 ~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설명문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설명문을 읽고 법정대리인이신 부모와 연구대상자인 청소년 모두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시간은 약 20분이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연구대상자에게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보상이 제공되었다. 총 383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결측치 없이 모든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에 성차가 보고된 바 있어(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Crick, Bigbee, & Howes, 1996; Crick & Grotp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보았다. 셋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4.2의 Model 4(Hayes, 2017)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4.2의 Model 15(Hayes, 2017)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Johnson-Neyman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한 영역을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였으며,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의 세 집단(-1*SD*, *M*, +1*SD*)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표 1 참조), 왜도 범위는 -.03 ~ .82였으며, 첨도 범위는 -.94 ~ .27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George & Mallery, 2019).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 특성 분노, 분노반추, 슬픔반추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1 참조), 특성 분노는 분노반추(r = .67, p < .001), 관계적 공격성(r = .43, p < .001), 슬픔반추(r = .48, p < .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 관계적 공격성과 슬픔반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노반추는 관계적 공격성(r = .44, p < .001), 슬픔반추(r = .69, p < .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분노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과 슬픔반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공격성은 슬픔반추(r = .26, p < .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슬픔반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성별을 통제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전, 분산팽창지수(VIF)는 1.39 ~ 2.78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독립변인인 특성 분노는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69, p < .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특성 분노가 매개변인인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1.12, p < .001). 매개변인인 분노반추는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29, p < .001). 매개변인인 분노반추와 독립변인인 특성 분노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37,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383)

	1	2	3	4
1. 관계적 공격성	-			
2. 특성 분노	.43***	-		
3. 분노반추	.44***	.67***	-	
4. 슬픔반추	.26***	.48***	.69***	-
M	12.69	21.16	30.15	30.65
SD	9.75	5.97	9.91	11.73
왜도	.82	.38	.33	-.03
첨도	.27	-.42	-.71	-.94

***p < .001.

표 2. 특성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N = 383)

	B	SE	β	t	95% CI		$R^2(F)$
					LLCI	ULCI	
특성 분노 → 관계적 공격성	.69	.08	.42	9.17***	.541	.836	.20(46.66***)
특성 분노 → 분노반추	1.12	.06	.67	17.74***	.993	1.240	.45(157.63***)
특성분노 → 관계적 공격성	.37	.10	.23	3.75***	.176	.564	.24(40.54***)
분노반추 → 관계적 공격성	.29	.06	.29	4.79***	.168	.402	

주. LLCI =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p < .001.

표 3. Bootstrapping을 통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383)

	B	SE	95% CI	
			LLCI	ULCI
특성 분노 → 분노반추 → 관계적 공격성	.32	.07	.187	.461

p < .001).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분노반추 수준이 높았으며, 분노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신뢰구간 95%에서 표본 수 5,000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B = .32, 95% CI [.187, .461]).

3.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성별을 통제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1.12, p < .001). 다음으로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33, p < .001), 분노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37, p < .001). 그러나 슬픔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성 분노와 슬픔반추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분노반추와 슬픔반추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 = -.01, p < .05),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슬픔반추의 모든 수준(-1SD, M, +1SD)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또한 슬픔반추 수준이 낮을 때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 슬픔반추 수준에 따라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son-Neyman 검증 결과, 평균중심화된 슬픔반추 값이 14.42(원점수 기준 약 45.07점)를 초과할 때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신뢰구간 95%에서 표본 수 5,000개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 95% CI [-.027, -.004]).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7 참조),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

표 4. 특성 분노와 분노반추를 통한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N = 383)

	B	SE	t	95% CI		R^2	F ($df1$, $df2$)
				LLCI	ULCI		
종속변인: 분노반추							
특성 분노	1.12	.06	17.74***	.993	1.240	.45	157.63*** (2, 380)
종속변인: 관계적 공격성							
특성 분노	.33	.10	3.33***	.136	.528	.26	21.76*** (6, 376)
분노반추	.37	.07	5.01***	.223	.512		
슬픔반추	-.06	.05	-1.19	-.163	.040		
특성 분노 × 슬픔반추	.02	.01	1.87	-.001	.034		
분노반추 × 슬픔반추	-.01	.01	-2.54*	-.023	-.003		

주. LLCI =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p < .05. ***p < .001.

표 5. 슬픔반추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기울기 검증 (N = 383)

	수준	B	SE	t	95% CI	
					LLCI	ULCI
슬픔반추	M - 1SD	.52	.11	4.95***	.314	.728
	M	.37	.07	5.01***	.224	.512
	M + 1SD	.22	.08	2.57*	.051	.379

주. LLCI =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p < .05. ***p < .001.

표 6. Bootstrapping을 통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383)

	B	SE	95% CI	
			LLCI	ULCI
슬픔반추	-.01	.01	-.027	-.004

표 7.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N = 383)

	B	SE	95% CI	
			LLCI	ULCI
M - 1SD	.58	.11	.377	.822
M	.41	.08	.258	.583
M + 1SD	.24	.10	.040	.440

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슬픔반추의 낮은 수준(B = .58, 95% CI [.377, .822])과 평균 수준(B = .41, 95% CI [.258, .583]), 높은 수준(B = .24, 95% CI [.040, .44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슬픔반추의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분노반추로 인해 높아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슬픔반추가 유의미하게 약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2를 통해 살펴보자면, 슬픔반추가 낮은 집단에서는 분노반추가 증가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슬픔반추가 높은 집단에서는 동일한 분노반추 수준 증가에도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조절 역할을 보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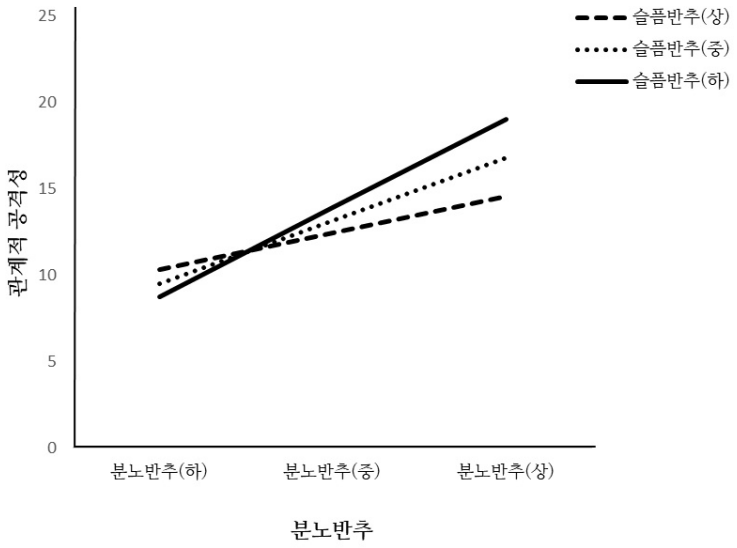


그림 2.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공격성(박인구, 한기백, 2014; 이홍, 김은정, 2012; 장혜원, 2018) 및 관계적 공격성(이서란, 2014; 황수정, 2015; Gresham et al., 2016)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크지만,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는 오히려 사회적 관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Karababa, 2020),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공격성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이현진, 유조안, 2022). 다음으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높을수록 분노반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홍준혁, 2023)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높은 특성 분노 경향이 있는 집단에게 높은 분노반추가 나타남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손민정, 장혜인, 2023; 최희숙, 주영아, 2020; Fahlgren et al., 2019; Krauch et al., 2018)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를 지닌 청소년은 더 광범위한 상황과 자극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장혜원, 2018), 분노반추가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 이후에 시작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Denson, 2013) 다양한 상황에서의 빈번한 분노 경험은 분노반추를 할 확률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이 많은 분노반추를 보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노반추가 공격성(신민진, 하은혜, 2020; 윤혜린, 2020; Martino et al., 2018) 및 관계적 공격성(김주영 등, 2022; 배라영, 최지영, 2018; 장희란, 윤성민, 2022; 전아영, 김은하, 2020; Zhu, Lu, Li, Tian, & Bai, 202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관계적 공격성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반사적 반응이 아닌,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전아영, 김은하, 2020), 분노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새길수록 분노의 정서가 증폭되어 공격성이 발생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은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공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적 공격성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사회적 공격성에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i & Xia, 2020)와 특성 분노와 공격성 사이의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Quan et al., 2022; Wang et al., 2018)와 유사하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한정하여 청소년의 매개 경로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노반추는 분노를 약화시키거나 조절하지 못하며, 분노하는 기분과 공격적인 생각에 오랫동안 집중하기 때문에 분노를 해결하는 능력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Wang et al., 2018).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정보처리이론(Crick & Dodge, 1994)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여 분노반추를 겪는 개인이 분노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며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해석하며, 이러한 과정이 공격적 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정보에서 정서 처리와 인지의 통합 모델(Lemerise & Arsenio, 2000)에 따라 높은 특성 분노를 가진 개인이 사회정보처리 과정인 분노반추에 결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공격성 모델(Anderson & Bushman, 2002)에 따라, 개인적 요인인 특성 분노가 인지적 요인인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는 과정이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의 인지적인 역할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서, 인지, 각성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슬픔반추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 경향이 증가하며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슬픔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 정적 관계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다.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분노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나타난 슬픔반추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분노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분노반추와 반대로 슬픔반추는 또래로부터 덜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공격성을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Peled & Moretti, 2007)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상호작용을 하며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Harmon et al., 2019)를 지지한다. 즉, 높은 생리적 각성으로 인해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노와 달리, 슬픔은 저각성의 부적 정서로서 분노와 반대로 작용하므로(Russell, 1980) 각 정서를 되새기는 분노반추와 슬픔반추가 반대의 영향을 하게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추하게 되면 공격적 행동과 같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나 행동을 촉진하지만, 슬픔에 대해 반추하면 내면으로 향하는 수동성과 자책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Harmon et al., 2019; Rusting & Nolen-Hoeksema, 1998). 그러나 슬픔반추의 완화 기능이 모든 경로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노한 개인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과정에서 슬픔이 유도된 후에는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실험연구들(Lutz & Krahé, 2018; Zhan, Ren, Fan, & Luo, 2015)을 지지하지 않으며, 본 연구는 슬픔 정서를 직접 유도한 것이 아니라 슬픔반추라는 인지적 정서조절 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실험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특성 분노는 일상에서 분노를 경험하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 성격 구성 요소로서(이홍, 김은정, 2012; Owen, 2011) 매우 강한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서의 활성 정도가 매우 크므로 인지적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강한 정서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조명현, 2021). 이에 따라 슬픔반추는 조절변인으로서 분노반추의 영향력은 완화할 수 있으나, 보다 강력한 정서적 경향성을 지닌 특성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를 유의미하게 완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특성 분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의 분노반추 수준이 높고 이어서 높은 공격성으로 나타나며, 이때 이러한 개인의 슬픔반추는 더 낮은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Fahlgren et al., 2019)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슬픔반추와 분노반추는 서로 다른 생각, 정서 및 운동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독립적인 형태의 반추로 간주되어(Miller, Pedersen, Earleywine, & Pollock, 2003; Peled & Moretti, 2010) 개념적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시킴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자기보고식 설문 자료와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온라인 패널 표집 방식은 자기선택편향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응답자의 성실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품질 검증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온라인 설문 응답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함에 따라 공통방법편향에 의해 변인 간 관계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과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타인평정 및 교사보고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 간 시간적 선후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중학교 3학년 비율이 높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다양한 가족구조 및 전체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서, 인지 및 행동 변인 간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 환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 분노의 선행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성 분노는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이지만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특성 분노의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여 어떤 맥락에서 특성 분노가 강화되는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된 슬픔반추 척도를 번역・역번역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나, 한국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별도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검증 등을 통해 번안 척도의 타당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노반추와 슬픔반추는 반추라는 공통된 인지적 처리과정을 공유하므로 높은 상관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각각 분노와 슬픔이라는 상이한 정서적 초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판별타당도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구성개념 간 중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두 구성개념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슬픔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방향성에 관한 제한된 해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슬픔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분석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슬픔반추의 완화 효과를 설명하였지만,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까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제를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완화 과정을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행동적 결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과정이 매개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및 나아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

는 정서 및 인지 측면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슬픔반추를 한국 청소년 표본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분노반추 외의 부정적 정서 유형에 따른 반추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반추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슬픔반추를 조절된 매개모형에 적용하여 변인 간 관계의 조건적 과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방법론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커지면 분노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나타나며, 이때 슬픔에 대한 반추가 이러한 분노의 경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슬픔반추는 기존 국외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온 인지적 정서조절 요인이지만,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슬픔반추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특히 조절된 매개모형을 적용하여 정서・인지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계한비, 김정민 (2025).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귀인편향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6(3), 83-109. https://doi.org/10.14816/sky.2025.36.3.83

김은희 (2020).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를 통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영, 명소연, 이동훈 (202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반추,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9(1), 105-121. https://doi.org/10.35734/karp.2022.29.1.006

김춘희 (2002). **또래 수용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희진, 박경 (2015). 분노반추가 분노에 미치는 영향: 작업기억용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2), 391-409. https://doi.org/10.15842/kjcp.2015.34.2.004

박성민, 임정하 (2021).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 고찰: 국내 학술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1), 93-117. https://doi.org/10.15284/kjhd.2021.28.1.93

박수진, 박창열, 이동훈 (2020). 주도적/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의 학급비선호 또래연결망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3(3), 145-170. https://doi.org/10.29096/JEE.33.3.07

박인구, 한기백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공격성의 관계: 분노와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375-397.

배라영, 최지영 (2018).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문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2(1), 29-52. https://doi.org/10.17286/KJEP.2018.32.1.02

서미정 (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8, 157-186.

손민정, 장혜인 (2023).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2), 253-273. https://doi.org/10.15842/cpkjournal.pub.9.2.253

신민진, 하은혜 (2020). 중학생의 부정적 인지와 공격성의 하위유형과의 관계. **보건과 복지**, 22(3), 139-169. https://doi.org/10.23948/kshw.2020.09.22.3.139

안현진, 금명자 (2018).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173-187. https://doi.org/10.35151/kyci.2018.26.1.009

윤혜린 (2020). 내면화된 수치심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131-1152.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2.1131

이규미 (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서란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화 (2010). **분노반추와 용서,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https://doi.org/10.14816/sky.2014.08.74.233

이현진, 유조안 (2022). 아동・청소년의 피폭력 및 피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1), 30-52. https://doi.org/10.24301/MHSW.2022.03.50.1.30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장혜원 (2018).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희란, 윤성민 (2022). 직장인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1), 189-201.

전아영, 김은하 (2020). 청소년의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381-393. https://doi.org/10.21097/ksw.2020.05.15.2.381

정은의, 송현주 (2010).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23-239. https://doi.org/10.15842/kjcp.2010.29.1.013

조명현 (2021).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감성과학, 24(1), 45-58. https://doi.org/10.14695/KJSOS.2021.24.1.45

최희숙, 주영아 (2020). 여대생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85-610. https://doi.org/10.17315/kjhp.2020.25.3.008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사회평가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85-1002. https://doi.org/10.15842/kjcp.2011.30.4.009

홍준혁 (2023). 특성 분노와 분노 반추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조절된 매개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수정 (2015).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공격성의 관계: 적대적 귀인편향과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27-51.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31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 https://doi.org/10.1037/0003-066X.38.11.1145

Berkowitz, L. (1978). Whatever happened to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1*(5), 691-708. https://doi.org/10.1177/000276427802100505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 https://doi.org/10.1037/0033-2909.106.1.59

Besharat, M. A., Nia, M. E., & Farahani, H. (2013). Anger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and anger rumination. *Asian Journal of Psychiatry, 6*(1), 35-41. https://doi.org/10.1016/j.ajp.2012.07.013

Bondü, R., & Richter, P. (2016). Interrelations of justice, rejection, provocation, and moral disgust sensitivity and their links with the hostile attribution bias, trait anger, and agg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7*(2016), 795. https://doi.org/10.3389/fpsyg.2016.00795

Caprara, G. V. (1986). Indicators of aggression: The Dissipation-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6), 763-769. https://doi.org/10.1016/0191-8869(86)90074-7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5), 1185-122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8.01184.x

Conway, M., Csank, P. A., Holm, S. L., & Blake, C. K. (2000). On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rumination on sa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3), 404-42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7503_04

Crick, N. R., Bigbee, M. A., & Howes,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How do I hurt thee? Let me count the ways. *Child Development, 67*(3), 1003-1014.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https://doi.org/10.1037/0033-2909.115.1.74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900.x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779.x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Thwaites, G. A., Lynch, R. S., Baker, D. A., Stark, R. S., Thacker, S., & Eiswerth-Cox, L. (1996). State-trait anger theory and the utility of the trait anger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2), 131. https://doi.org/10.1037/0022-0167.43.2.131

Denson, T. F. (2013). The multiple systems model of angry ru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7*(2), 103-123. https://doi.org/10.1177/1088868312467086

Fahlgren, M. K., Puhalla, A. A., Sorgi, K. M., & McCloskey, M. S. (2019). Emotion processing in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273*(2019), 544-550.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9.01.046

Galen, B. R.,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89. https://doi.org/10.1037/0012-1649.33.4.589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

George, D., & Mallery, P. (2019). *IBM SPSS Statistics 23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London: Routledge.

Gresham, D., Melvin, G. A., & Gullone, E. (2016). The role of ang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sing symptoms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9), 2674-2682. https://doi.org/10.1007/s10826-016-0435-4

Harmon, S. L., Stephens, H. F., Repper, K. K., Driscoll, K. A., & Kistner, J. A. (2019). Children's rumination to sadness and anger: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8*(4), 622-632. https://doi.org/10.1080/15374416.2017.1359788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Karababa, A.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ger and loneliness among early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9*(2020), 109856. https://doi.org/10.1016/j.paid.2020.109856

Kelley, K., Walgren, M., & DeShong, H. L. (2021). Rumination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The role of rumination in relation to antisocial and borderline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5*(2021), 865-872. https://doi.org/10.1016/j.jad.2021.08.034

Kersten, R., & Greitemeyer, T. (2024). Human aggression in everyday life: An empirical test of the general aggression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3*(3), 1091-1111. https://doi.org/10.1111/bjso.12718

Krauch, M., Ueltzhöffer, K., Brunner, R., Kaess, M., Hensel, S., Herpertz, S. C., & Bertsch, K. (2018). Heightened salience of anger and aggression in female adolesc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A script-based fMRI study.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2*, 57. https://doi.org/10.3389/fnbeh.2018.00057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1002_2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https://doi.org/10.1111/1467-8624.00124

Li, C., Zhao, Q., Dai, W., & Zhang, Y. (2021). Victims become covert aggressors: Gender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55*(4), 441-456. https://doi.org/10.1080/00223980.2021.1901254

Li, R., & Xia, L. X. (2020). The mediating mechanisms underlying the longitudinal effect of trait anger on social aggression: Testing a temporal path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88*(2020), 104018. https://doi.org/10.1016/j.jrp.2020.104018

Lutz, J., & Krahé, B. (2018). Inducing sadness reduces anger-driven aggressive behavior: A situational approach to aggression control. *Psychology of Violence, 8*(3), 358. https://doi.org/10.1037/vio0000167

Malamut, S. T., & Salmivalli, C. (2023). Adolescent victimization predicts adult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role of rumi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9*(8), 1464. https://doi.org/10.1037/dev0001544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Aggressive Behavior, 30*(5), 430-439. https://doi.org/10.1037/t06331-000

Martino, F., Caselli, G., Di Tommaso, J., Sassaroli, S., Spada, M. M., Valenti, B., Berardi, D., Sasdelli, A., & Menchetti, M. (2018). Anger and depressive ruminations as predictors of dysregulated behaviour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5*(2), 188-194. https://doi.org/10.1002/cpp.2152

Miller, N., Pedersen, W. C., Earle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75-97.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701_5

Owen, J. M. (2011). Transdiagnostic cognitive processes in high trait ang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2),

193-202. https://doi.org/10.1016/j.cpr.2010.10.003

Owens, L., Slee, P., & Shute, R. (2000). 'It Hurts a Hell of a Lot...' The Effects of Indirect Aggression on Teenage Gir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4), 359-376. https://doi.org/10.1177/0143034300214002

Peled, M., & Moretti, M. M. (2007).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in adolescence: Fueling of fury and deepening of despai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66-75. https://doi.org/10.1080/15374410709336569

Peled, M., & Moretti, M. M. (2010). Ruminating on rumination: Are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differentially related to aggression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2*(1), 108-117. https://doi.org/10.1007/s10862-009-9136-2

Preddy, T. M., & Fite, P. J. (2012). Differential associations betwee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and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4*(2), 182-190. https://doi.org/10.1007/s10862-011-9274-1

Quan, F., Wang, L., Gong, X., Lei, X., Liang, B., & Zhang, S. (2022).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nger rumination sequential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12*, 778695. https://doi.org/10.3389/fpsyg.2021.778695

Quinn, C. A., Rollock, D., & Vrana, S. R. (2014). A test of Spielberger's state-trait theory of anger with adolescents: Five hypotheses. *Emotion, 14*(1), 74. https://doi.org/10.1037/a0034031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61. https://doi.org/10.1037/h0077714

Rusting, C. L., & Nolen-Hoeksema, S. (1998). Regulating responses to anger: Effects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angry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90-803. https://doi.org/10.1037/0022-3514.74.3.790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89-108). New York: Springer New York.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71-9

Takebe, M., Takahashi, F., & Sato, H. (2015). Mediating role of anger rumination in the associations between mindfulness, anger-in, and trait anger. *Psychology, 6*(8), 948-953. https://doi.org/10.4236/psych.2015.68093

Wang, X., Yang, L., Yang, J., Gao, L., Zhao, F., Xie, X., & Lei, L. (2018). Trait anger and aggress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anger rumin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5*(2018), 44-49. https://doi.org/10.1016/j.paid.2017.12.029

Zhan, J., Ren, J., Fan, J., & Luo, J. (2015). Distinctive effects of fear and sadness induction on anger and aggressive behavior. *Frontiers in Psychology, 6*, 725. https://doi.org/10.3389/fpsyg.2015.00725

Zhu, W., Lu, D., Li, C., Tian, X., & Bai, X. (2024).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ostracism, anger rumination, and social aggression. *Current Psychology, 43*(4), 3158-3165. https://doi.org/10.1007/s12144-023-04279-9